

축구·배구

4

2020년 2월 14·15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의 피버피치

아시아의 호랑이는 옛말 J리그에 찢찢매는 K리그

ACL 쿼터 2+2 조정…전북은 출전

지난해 12월 말, 아시아축구연맹(AFC)이 회원국들에 대륙 순위(랭킹)와 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 쿼터를 안내하는 공식 문서를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달하자 K리그는 비상이 걸렸다. 풍문으로 접한 쿼터 조정이 현실로 닥친 탓이다.

K리그는 2021년부터 2년 간, 2+2장을 받게 됐다. 올 시즌까지 리그 우승 팀과 2위, FA컵 챔피언이 조별리그에 직행하고 리그 3위가 플레이오프(PO) 단판승부를 갖는 형태였다면 내년부터는 리그·FA컵 우승 팀이 조별리그에 안착하고 리그 2·3위는 PO를 거쳐야 한다.

AFC는 동·서아시아 최상위 1, 2위 회원국들이 3+1, 3위가 2+2를 받도록 했다. K리그가 일본 J리그와 자리를 바꿔야 한다. 과거 동아시아 클럽 축구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최근의 기류가 그렇다.

2017년은 제주 유나이티드만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에서 도전을 멈춘 반면, 중국·일본은 두 팀씩 8강에 올랐고 우리와 레즈(일본)가 정상에 섰다. 2018년에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이 8강에 진입했지만 가시마가 우승했고, 지난해 대회에선 전북과 울산 현대가 16강에서 탈락한데 반해 중국·일본은 두 팀을 8강에 올렸다. 우승은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에게 돌아갔지만 우리와가 2년 만에 다시 결승에 올라 대조를 이뤘다.

더욱이 PO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그간 PO는 결과가 뻔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관문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추이를 장담할 수 없다. 2018년 왕좌에 오른 가시마 앤틀러스(일본)도 홈에서 뱀바른 빅토리(호주)에 0-1로 패해 탈락할 정도다. 특히 연초 진행되는 PO는 동계훈련 중 이뤄져 풀전력을 꾸리기 어렵다는 변수가 있다.

결국 2024년 이후 ACL에서 줄어드는 쿼터와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려면 올해와 내년 대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여전히 압도적인 투자로 경쟁한 스타를 흡수하는 중국은 별개로 하고, 일본을 넘어야 한다는 결론이 선다. 많은 축구인들이 “경쟁력이 필수다. K리그가 토너먼트에서 오래 생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그러나 첫 걸음은 불편하다. 각각 FC도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울산, 전북은 승수를 쌓지 못했다. 1무 1패. 특히 한일 챔피언스 대결로 관심을 끈 승부에서 전북이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일본만큼은 넘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은 어떻게 귀결될까. 초라한 출발이 창대한 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조별리그 1라운드의 남은 기회는 빗셀고베를 19일 홈으로 불러들일 수원이 유일하다.

yoshike3@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K리그 감독들을 소개합니다

조덕제·모라이스 ‘왕고’…설기현·박동혁 ‘막내’

〈부산·전북 감독:55세〉

〈경남·아산 감독:41세〉

K리그1 감독 12인 ▶▶▶

(가나다 순)



강원 김병수



광주 박진섭



대구 이병근



부산 조덕제



상주 김태완



서울 최용수



성남 김남일



수원 이임생



울산 김도훈



인천 임완섭



전북 모라이스



포항 김기동

김병수 감독 등 고대 출신 4명 최다 DF 8명·MF 8명·FW 6명 고른 분포 K리그 데뷔 감독 7명…성적 궁금증

감독의 역할에 대해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축구에서 99%는 선수고, 감독은 1%다. 하지만 그 1%가 없으면 100%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감독은 팀을 완성시키는 그런 존재다. 한 경기를 위해 선수 선발부터 훈련, 관리까지 모두 책임져야하는 자리다. 성격도 오롯이 감독의 몫이다. 잘하면 재계약이고, 못 하면 잘린다.

프로축구 K리그 감독은 모두 22명이다. K리그1(1부) 12명과 K리그2(2부) 1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올해도 매일 외줄을 타야 한다. 햇살이 비출 때도 있지만 눈비가 오면 맨몸으로 감당해야한다. 그 래도 그들은 “축구인생의 꽃”이라며 감독의 길을 고집한다. 2020시즌 개막을 보름가량 앞둔 가운데 고독한 길을 자처한 K리그 감독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40대가 주류…평균 나이 48세

호적상 나이를 기준으로 모두 40~50대다. 40대가 14명, 50대가 8명이다. 평균 연령은 48세다. 이제 40대 초중반이면 감독을 시작해야할 나이다. 최고령은

1965년생(55세)인 부산 조덕제 감독과 전북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이다. K리그에 복귀한 대전 황선홍 감독은 52세로 서열 5위다. 가장 젊은 지도자는 경남 설기현·아산 박동혁 감독으로 1979년생(41세)이다. 안산 김길식(42세), 성남 김남일·광주 박진섭 감독(이상 43세)도 젊은 축에 속한다.

●고려대 출신 4명으로 가장 많아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고려대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강원 김병수·수원 이임생·광주 박진섭·아산 박동혁 감독이 동문이다. 울산 김도훈 감독과 서울 최용수 감독은 연세대 선후배다. 한양대(이병근·김남일) 경일대(서울이랜드 정정용·전남 전경준) 출신도 나란히 2명씩이다. 고교 축구명문인 동래고(상주 김태완·최용수)와 부평고(수원 이임생·남기일) 출신도 2명씩으로 눈에 띈다.

●선수 시절 포지션은 골로루 분포

아무래도 자신이 잘 아는 포지션에 눈길이 먼저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공격수 출신이면 최전방 선수의 역할과 심리를 더 세밀하게 관찰한다. 수비수 출신이면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전술에 더 민감하다. 다만 감독이라면 총괄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하다. 선수시절 포지션은 D F(8명) MF(8명) FW(6명)가 고르게 분

K리그 감독 현황			
	구단	감독(나이)	출신고
K리그1	강원	김병수(50)	경신고 - 고려대
	광주	박진섭(43)	개성고 - 고려대
	대구	이병근(47)	진주고 - 한양대
	부산	조덕제(55)	군산제일고 - 아주대
	상주	김태완(49)	동래고 - 홍익대
	서울	최용수(47)	동래고 - 연세대
	성남	김남일(43)	부평고 - 한양대
	수원	이임생(49)	부평고 - 고려대
	울산	김도훈(50)	학성고 - 연세대
	인천	임완섭(49)	한양공고
K리그2	전북	모라이스(55)	포르투갈
	포항	김기동(48)	신광고 - 위덕대 - 영남대(석사)
	경남	설기현(41)	강릉상고 - 광운대
	대전	황선홍(52)	용문고 - 건국대
	부천	송선호(54)	영동포공고 - 인천대
	서울FC	정정용(51)	경일대 - 명지대(석사) - 한양대(박사)
	수원FC	김도균(43)	인동고 - 울산대 - 경희대(석사)
	아산	박동혁(41)	경희고 - 고려대
	안산	김길식(42)	봉성고 - 단국대
	안양	김형열(54)	안양공고 - 국민대
전남	전경준(47)	창주상고 - 경일대	
	제주	남기일(46)	금호고 - 경희대

※ 대구는 이병근 감독 대행 체제

포됐다. 수비수 출신은 박진섭·이병근·조덕제·김태완·이임생·송선호·정정용·박동혁 등이고, 김병수·김남일·임완섭·김기동·김도균·김길식·전경준·모라이스 등은 중원에서 뛰었다. 황선홍·최용수·김도훈·설기현·남기일·김형열 등 한국축구를 대표했던 스트라이커들도 즐비하다. 황선홍·최용수·설기현·김남일 등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기적의 멤버들이다. 하지만 지도자는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화려했던 선수시절의 계급장을 떼고 또 다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황선홍 가장 화려한 지도자 경력

이미 우승을 경험한 지도자도 꽤 된다. 가장 화려한 이력은 황선홍 감독이다. 2006년 전남에서 지도자를 시작한 황 감독은 포항 감독으로 2012년 FA컵 우승, 2013년 K리그1·FA컵 우승(더블)을 차지했다. 서울로 옮긴 2016년에도 정상에 올랐다. 최용수 감독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 레전드인 그는 2012년 K리그 우승과 이듬해 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15년 FA컵 우승 등으로 일찌감치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극적으로 K리그1 정상에 오른 모라이스 감독이나 K리그2를 평정한 박진섭(2019년)·박동혁(2018년) 감독도 무시 못 할 능력자들이다. FA컵 우승을 맞은 이임생 감독(2019년)이나 김도훈 감독(2017년)의 다음 목표는 정규리그 정상이다. 지난해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정정용 감독은 이제 K리그에 도전장을 냈다. 정 감독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올해 감독 데뷔 시즌을 갖는 신에는 김남일·설기현·김도균·김길식·전경준 감독과 이병근 감독대행 등 7명이다. 젊은 지도자들이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까닭에 기대가 크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휴식기 마친 손흥민 ‘5경기 연속 골 부탁해’

16일 애스턴 빌라전부터 후반 레이스

최근 개인 일정으로 잠시 귀국했던 손흥민(28·토트넘)이 2019~2020시즌 본격적인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FA컵 등 3개 대회를 동시에 소화하는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은 1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EPL 26라운드 경기를

소화한다. 20일에는 라이프치히(독일)와의 UCL 16강 1차전을 홈에서 치른다. 22일 런던 라이벌 첼시FC와의 EPL 27라운드 원정을 갖는 등 중요한 일정들이 잇따라 펼쳐진다. 3월말까지 거의 일주일당 2경기씩을 펼치는 강행군이다. 다음달 5일에는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FA컵 5라운드(16강) 경기도 예정돼 있다.

손흥민은 이번 휴식기 이전까지 4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며 상승세를 탔다. 이번 시즌 각종 대회에서 31경기에 출전해 14골



손흥민

·9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애스턴 빌라와의 원정경기에서 5경기 연속 골 맛을 보면서 휴식기 이전의 감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 EPL 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으면 4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게 된다.

손흥민이 후반기에 꾸준한 득점 페이스를 보인다면 개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 달성도 기대해볼만 하다. 손흥민은 2016~2017시즌 21골을 넣어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또 유럽프로축구 무

대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의 한 시즌 최다골(19골) 기록을 보유했던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섰다. 지난 시즌 20골을 기록해 어렵게 기록 경신에 실패한 그가 이번 시즌 잔여 경기를 통해 새 역사에 도전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토트넘의 후반기 일정은 EPL 13경기, UCL 2경기, FA컵 1경기 등이다. UCL과 FA컵은 결과에 따라 경기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4월이나 복귀가 가능한 손흥민은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다시 한 번 골과 관련된 자신의 기록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신인 세터 김명관이 쏠찌 한국전력에 쏘아올린 ‘작은 희망’

12일 데뷔전 6득점 알토란 활약 블로킹 3회…팀 높이 약점 극복

한국전력은 13일 현재 6승21패, 승점22로 꼴짜다. 토종에이스 서재덕이 고군분투했던 지난 시즌 4승32패 승점19는 이미 넘어섰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패배속에서 희망은 보인다. 12일 폴세트 헨틀을 치렀던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신인드래프트 전제 1순위 김명관의 가능성이었다.

신장 195cm의 장신세터가 처음 주전으로 출전하자 한국전력 배구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까지 주전세터로 활약했던 이호건과 이민욱보다 공을 쏘주는 타점이 높은 덕분에 wing 공격수들이 훨씬 편하게 패했다. 이번 시즌 새로 지휘봉을 잡은 뒤 “새로운 팀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장병철 감독은 “그동안 힘든 훈련을 잘 견뎌내서 이제는 기회를 줄 때라고 생각했다. 몇

몇 선수들이 훈련은 많이 하지 않고 경기에만 뛰면서 연봉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스포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땀이다”고 했다.

김명관은 한국전력이 지명하기 전부터 배구계의 시선을 받아왔던 기대주였다. 신인드래프트 때 “신인왕에 도전해보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지만 그 기회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준비기간 동안 장병철 감독은 김명관의 생각을 먼저 바꿨다. 세터는 빠른 연결을 먼저 생각했다. 감독은 스피드보다 더 필요한 것이 공격수와의 조화라고 봤다. “억지로 빨리 연결하다보면 볼 꺾이 죽어서 공격수들이 패리가 어려워진다. 기본에 충실하자. 공격수들이 잘 때리도록 높은 타점에서 편하게 밀어라”고 주문했다.

권영민 코치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힘든 시간 불평 없이 따라왔다. 결국 성과는 12일 본격적인 프로 데뷔무대에서 나타났다. 그가 등장하자 한국전력의 약점이었

던 블로킹 벽도 높아졌다. 김명관은 3개의 블로킹을 하며 장신세터의 가치를 보여줬다. 장병철 감독은 “이변이 없는 한 이 구성으로 시즌을 갈 것”이라고 했다.

시즌 도중 1-2 트레이드 때 최홍석의 상대로 장준호와 함께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은 이준준도 한국전력의 내일을 기대하게 해준다. 신인왕 후보였던 구본승의 갑작스런 이탈로 구멍이 난 자리를 해성처럼 등장에 메워버렸다. 신장 195cm의 wing 공격수여서 장병철 감독은 왼쪽의 높이가 낮은 한국전력에 꼭 필요한 존재로 영입을 원해왔다. 장 감독은 “점프 스타일이 다른 선수와 달리 늘어난다. 그동안은 높은 점프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빠르게 패리는 대신 높게 때리도록 몸을 교정했다. 어리고 평소 성격이 소심해 가진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2배나 훈련을 잘 소화하면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다”고 칭찬했다. 우리카드전 18득점 55%의 높은 공격성공률은 그동안 흘려온 땀이 만든 숫자였다.



김명관

루키 김명관과 2년차 이승준이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전력은 3년차 김인혁과 함께 팀의 골격을 세우게 됐다. “인성 좋은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팀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감독의 생각이 차츰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서재덕이 돌아올 때쯤 정말로 탄탄한 팀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감독은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밀그림을 잘 그리는 디테일을 갖춰 실행하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